

올 첫우승 KO 올림픽 金 GO



‘고진영’ 5일 미국 텍사스주 더글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에서 고진영(26)이 18홀 그린에서 파 퍼트를 마친 뒤 우승을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진영,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서 7개월 만에 LPGA 정상 세계랭킹 1위 탈환 디딤돌 ... 이정은 7위 ‘시즌 두 번째 톱 10’

고진영(26)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진 우승 갈증을 씻어냈다. 고진영은 5일 미국 텍사스주 더글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VOA)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2언더파 69타를 쳐 최종합계 16언더파 268타로 우승했다. 마틸다 카스트렌(핀란드)을 1타 차로 제친 고진영은 작년 12월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지 197일 만에 통산 8번째 LPGA 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 대회에 앞서 이번 시즌 LPGA 투어에서 10

개 대회에 출전했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면서 112주 동안 지켰던 세계랭킹 1위를 벨리 코르다(미국)에게 내줬던 고진영은 세계 1위 탈환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지난달 28일 세계랭킹 1위를 내놓고 “아직 죽지 않았다”던 고진영은 “그동안 세계랭킹 1위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건 사실이다. 이번에 다시 우승해 기쁘다”고 말했다. 우승 상금 22만5000달러를 받은 고진영은 상금랭킹 7위(79만1336달러)로 상승, 상금왕 3연패에도 시동을 걸었다. 2017년부터 매년 우승 행진을 이어온 고진영은 선두로 시작한 7차례 최종라운드에서 5승을 거두

는 강한 뒷심도 과시했다. 무엇보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상승세를 탔다는 사실이 고무적이다. 고진영은 박인비, 김세영, 김효주와 함께 도쿄 올림픽에 출전한다. 고진영의 우승으로 LPGA 투어 한국 선수 무승 행진도 7경기에서 멈췄다. 파이널 라운드에서 1타를 줄인 이정은은 7위(11언더파 273타)로 이번 시즌 두 번째 톱10에 올랐다. 17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낸 김효주는 4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8위(10언더파 274타)에 올랐다. 조건부 출전권으로 이 대회에 나온 김민지는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려 다음 대회에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전인지는 이븐파를 쳐 공동 14위(8언더파 276타)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올림픽 앞 둔 임성재, PGA 로켓 모기지 8위

임성재(23)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에서 약 4개월 만에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임성재는 5일(한국시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디트로이트 골프클럽(파72·7370야드)에서 열린 로켓 모기지 클래식(총상금 75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6개를 뽑아내고 보기는 하나도 막아 5언더파 67타를 쳤다. 3라운드까지 10언더파 206타로 공동 12위였던 임성재는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적어내 공동 8위로 올라서며 대회를 마쳤다.

우승자 캐머런 데이비스(호주·18언더파 270타)와는 3타 차다. 데이비스가 마지막 날 5타를 줄여 트로이 메릿(미국), 호아킨 니만(칠레)과 동타를 이룬 뒤 5차 연장전에서 승리했다. 우승 상금은 135만 달러(약 15억 3000만원)다. 김시우(26)는 이날 2타를 잃어 공동 58위(6언더파 282타)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KIA, 4경기 7홈런 ‘평평’

부상 브룩스 한 달만에 선발 타선 복귀 최형우 연패 끊어 김호령 3경기 연속 홈런포



‘부상병동’·‘장타 부재’라는 숙제를 풀자 3연승이 찾아왔다. KIA 타이거즈가 약망의 6월을 뒤로하고 3연승으로 7월을 열었다. KIA

는 지난 6월 29일 NC와의 홈경기에서 3-7 역전패를 당하며 최근 5연패, NC전 6연패에 빠졌다. 지난 30일 경기가 비로 경기가 취소되면서 KIA의 6월은 6승 17패(승률 0.261)의 처참한 성적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KIA는 7월 시작과 함께 3경기에서 3승을 수확했다. KIA 부진의 원인 중 하나였던 ‘부상’ 변수에 변화가 있었다. 팔꿈치 통증으로 빠졌던 브룩스가 1일 NC를 상대로 한 달 만에 마운드에 올랐고,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난 최형우도 이날 다시 타석에 섰다. 팀의 에이스와 중심타자가 동시에 가세하면서 KIA는 이날 6-3 승리를 거두고, 연패를 끊었다. ‘60구’를 예고했었던 브룩스가 54구로 4회를 1실점으로 막으면서 마운드에 힘을 실었고, 최형우도 멀티히트로 3타점을 만들면서 승리에 기여했다.



김호령

부진과 허리 통증으로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보냈던 터커도 2일 엔트리에 재합류했다. 아직 강렬함은 부족하지만 두 경기에서 각각 2루타와 홈런을 신고하면서 타선에 힘을 보탤다. 팀의 주축 선수가 돌아오면서 전력 강화에 성공한 KIA는 역시 부진의 주요 원인이었던 ‘장타력’에서도 반전의 한 주를 보냈다. KIA는 지난주 4경기에서 홈런 7개를 터트렸다. 경기당 1.75개의 홈런이 나오면서 6경기에서 10홈런(경기당 평균 1.66개)을 날린 ‘홈런 1위’ SSG에 앞서 주간 홈런 1위 팀이 됐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타선에서 홈런이 터지면 상대에게는 더 치명적인 ‘한방’이 됐다. 김호령이 NC 투진스기·송명기, 그리고 두산 유희관을 상대로 연달아 담장을 넘기며 3경기 연속 홈런 주인공이 됐다. 김선빈도 투진스기, 송명기를 상대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날리며 그라운드를 돌았고, 박찬호도 4일 두산 김민규를 상대로 시즌 마수걸이 홈런을 날리면서 김유신 프로 첫 승 경기의 결승타 주인공이 됐다. 부상·장타 고민이 동시에 풀리면서 바로 3연승을 달린 KIA는 주중 대전으로 가 최하위 한화를 상대로, 주말에는 안방에서 1위 KT와 맞대결을 한다.

주중 마운드 운영에는 여유가 있다. 5일 예정됐던 월요일 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KIA는 불펜 전력을 비축한 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또 임기영을 시작으로 브룩스, 이의리가 연달아 출격해 최상의 선발진으로 연습 잇기에 나선다. 임기영은 11일 경기까지 소화하면서 선발진은 안정적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1위 KT전에서는 4.5선발이 출격하는 만큼 뜨거운 방망이와 불펜의 ‘뒷심 싸움’이 중요하다. 올 시즌 KIA는 KT와 9번 만나 2승 7패를 기록했다. 이 중 5경기가 역전패였고, 두 경기에서는 정해영과 박준표의 불륜세이브가 남기도 했다. 2승도 쉽지 않았다. 5월 28일 안방에서 열린 KT와의 시즌 4차전에서 KIA는 이창진의 끝내기 땅볼로 7-6 끝내기 승을 거뒀다. KT 입장에서는 유격수 심우준의 수비가 아쉬웠던 끝내기였다. 두 번째 승리가 기록된 6월 23일 원정경기에서도 KIA는 2-1 진땀승을 거뒀다. 본격적인 장마가 찾아오면서 비도 변수다. 선수단 컨디션 관리와 로테이션 운영 등 다양한 계산을 하면서 KIA가 7월 상승세 잇기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온라인 타이거즈숍 ‘팬수 컬래버레이션’ 상품 판매

KIA 타이거즈가 인기 캐릭터 ‘팬수’와 손을 잡았다. KIA가 7일 오후 3시부터 온라인 타이거즈숍을 통해 ‘팬수 컬래버레이션’ 상품 7종을 선보인다. 판매되는 상품은 팬수 유니폼(마킹티셔츠 별도), 모자, 포토틀, 열쇠고리, 배지, 타올, 반려동물 유니폼 등 7종이다. 상품은 오는 21일부터 배송된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상품쇼에서는 올림픽 휴식기가 끝나고 KBO리그가 재개되는 8월 10일부터 팬수컬래버 상품 판매된다. 한편 KIA는 앞서 푸, 티거, 토이스토리(버즈, 우디), 아이언맨 등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한 컬래버 유니폼과 상품을 제작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김연경, 마지막 올림픽 첫 메달 도전

여자배구 대표팀 엔트리 확정 25일부터 브라질과 A조 예선

김연경(중국 상하이)이 이소영(KGC인삼공사), 양효진(현대건설)과 함께 ‘마지막 올림픽에서의 첫 메달’에 도전한다. 대한민국배구협회(회장 오한남)는 5일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 최종 엔트리(12명)를 확정해 발표했다. 레프트는 김연경과 이소영, 표승주(IBK기업은행), 박정아(한국도로공사) 등 4명을 뽑았다. 세터는 염혜선(KGC인삼공사)과 안혜진(GS칼텍스) 2명이다. VNL에서 활약한 김다인(현대건설)은 최종 엔트리에서는 빠졌다. 리베로 한지리는 오지영(GS칼텍스)이 차지했다. 라이트 2명은 김희진(IBK기업은행)과 정지윤

(현대건설)이다. 리베리니 감독이 가장 고심했던 센터에는 양효진, 박은진(KGC인삼공사), 김수지(IBK기업은행) 총 3명을 선발했다. 리베리니 감독은 부상 탓에 VNL에 출전하지 못한 김희진과 김수지를 하동으로 불러 최종 점검했고, 최종 엔트리에 넣었다. 리베리니 감독은 “긴 시간 고민해 팀에 전술적으로 조금 더 부합하는 선수를 선발했다. 선수 개인이 가진 역량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선수단 모두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도쿄올림픽을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랭킹 14위인 한국 여자배구는 오는 25일 브라질(3위), 27일 케냐(24위), 29일 도미니카공화국(6위), 31일 일본(5위), 8월 2일 세르비아(13위)와 A조 예선을 벌인다. /연합뉴스